

# ‘대중농민운동의 선봉에 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한농연 제2차 총궐기 대회를 마치며

지난 6월 20일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농업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을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한농연 1만여 회원들이 서울 도심으로 모였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무대에 집중하며 그동안의 쌓였던 울분과 한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나부끼는 깃발과 ‘한-미 FTA 무효’가 적힌 카드는 본 대회 중반부로 가면서 어느덧 군중과 하나가 되어 거대한 목소리로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2004년 서울 집회 이후 근 3년 만에 한농연 단독으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조직 내·외적으로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

## 집회문화의 변화를 통한 대중운동의 시험무대

이번 집회 준비단계에서의 고민은 ‘내용의 다양성과 국민의 관심유발’이었다. 집회가 다양하고 재미있으면 안 되는가? 경직된 분위기와 결연한 의지가 집회 장소에서 보여져야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가?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문제이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여론을 끌어들이고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대중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대중운동이 진정한 집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집회문화는 바로 우리가 가야할 대중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집회의 특별한 형식도 규제도 없다.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약속된 시간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로 행진을 시작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어떤 때는 같이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악기를 연주하

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면서 행진을 한다.

피부색과 언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도,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도, 예술가도, 노숙인도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목소리를 높인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맘이 내키면 스스로 대열 속으로 들어간다. 행진 전체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도 없지만 잘 짜여진 한 편의 작품처럼 집회가 이루어진다.

### 언론의 수준은 아직 제자리...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 여전히 과거의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자극적 화면과 볼거리 위주의 화면을 바라는 기자들의 의도된 질문이 이전 집회에서나 이번 집회에서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러한 언론의 시각으로 인해 집회의 방식에 더욱 기름을 붓고 그로 인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주최측에서는 다음 집회에 좀 더 자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집회의 형식과 볼거리 보다는 본질을 보도하고 문제의식과 주장에 더 관심을 갖는 성숙된 보도의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대중운동의 완성된 집회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집회의 성과는 무엇인가?

그동안 한·미 FTA 반대진영은 연초 한·미 FTA 체결 시점을 겨냥하여 활발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한·미 FTA가 수순대로 체결되고 농번기로 접어들면서 농민진영에서부터 한·미 FTA 투쟁의 동력을 결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그라들고 언론의 기초 또한 자연스럽게 정부 편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문제의식에서 멀어져 갔다.

한농연의 단독 집회는 이러한 국면에 파장을 일으키고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언론의 기초를 새롭게 일깨우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당일 집회가 진행된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에서 만나 본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이전 집회에서 보였던 시민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다. 기존 집회에 대한 ‘묻지마’ 식의 거부반응과 냉담함이 아닌 집회의 내용과 본질을 인식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는 성공적인 집회였다고 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6월 20일자 보도〉

강북구에 사는 고일영씨(51)는 쌀과 김치를 받았다. 고씨는 “농민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FTA 협정 체결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정부는 농민들의 사정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채씨(성동구·49)는 “사실 이 정도로 피해가 클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TV나 신문에서 피해가 이렇게 크다고 말한 적은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유하나씨(21)는 “국민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쳐놓고 정작 미국 관리들 앞에서는 꿈쩍도 못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신현지씨(21)는 “농민들은 열심히 고생하는 데 정부의 협상 기준은 너무 한쪽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유씨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가족과 함께 청계천을 찾은 김태향씨(마포구·33)는 “아이들 급식문제도 걱정이다”고 답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깐 애들 급식에 수입 쇠고기를 넣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큰 애 학교가 자체 급식이라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광우병 쇠고기가 애들 급식에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한·미 FTA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 한농연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인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록 정리집회까지 처음의 인원이 그대로 남아 조직력을 과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한농연 단독으로 진행된 집회에서 깔끔한 정리가 아쉬웠던 오점을 이번 집회에서 일소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집회의 내용들이 집회 참가자 스스로가 집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집회가 모두 끝나고 귀가를 하며 참가한 회원들이 이구동성 “이번 집회만큼만 한다면 한농연 단독집회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말을 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한 자신감과 가능성의 확인은 향후 한농연이 대외적 활동의 폭을 더욱 넓게 가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집회도 하나의 소통 수단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조직원과의 소통, 조직원과 지도부간의 소통, 지도부와 직원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조직과 국민간, 조직과 국가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집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회의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한농연은 이번 집회를 계기로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여러 시민들과 쉽게 하지 못했던 대중운동을 농업계에서 한농연이 처음으로 시도했다. 내용상의 보완점과 미흡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생기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줄기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한농연은 농민대중운동의 선두에서 농민의 목소리와 농업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